

曉亭 李順鐸의 生涯와 思想

洪性讚

본고는 일제하와 해방 직후에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가였던 李順鐸 교수의 誕辰 100주년을 맞아 그의 思想形成 과정과 延壽 教授 부임 후의 활동과 사상, 그리고 해방 직후의 정치참여와 國家建設觀을 정리한 글이다. 20세기 前半期라는 짧은기간 동안 그는 사상적·정치적 편력을 거듭했지만,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그는 정치적으로는 左右合作 民族協同에 의한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지향했다가 분단 후 남북한 체제에 각각 흡수되어 좌절한 中間派 정치세력의 전형적 행로를 밟았고, 사상적으로는 맑스주의·국제주의와 민족주의·애국주의라는 상반된 세계관을 수용하여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에서 그 출구를 찾은 인물이었다. 그 동안 학계가 한국 근현대 思想史의 전체 地圖를 그려 가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 왔으면서도, 중간파 정치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진영의 思想的 淵源,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한국적 受容과 變容 그리고 그 挫折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고는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생각한다.

I. 序 言

효정 이순탁(1897~?)은 20세기 前半期라는 짧은기간 동안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다양한 사상적 편력을 거쳤다. 1920년대 초에 京都帝大에서 카와카미 하지메(河上肇) 교수에게 맑스경제학을 배운 그는 1923년에 延禧專門學校 商科 教授가 되어 한국 사상계에 맑시즘을 선구적으로 소개했고, 1938년에는 이른바 연회전문학교 學內 赤化 사건 일명 經濟研究會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구속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잠시 韓國民主黨에 가담했으나 곧 탈당하여 1946년 가을 中間派 정치집단인 民衆同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20-749. 이 글은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최 '曉亭 李順鐸 教授 誕辰 100週年 紀念學術行事(1997. 12. 3)'에서 발표하기 위하여 필자의 글 [50]에 첨삭을 가하여 작성한 것임.

盟 결성에 참여했고, 그 후 1948년 1월까지 민주주의독립전선, 민주독립당 등 左右合作 노선에서만 줄곧 활동하였다. 당시의 양대 정치세력이던 한국민주당(우익)과 조선공산당(좌익)을 거부한 채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통일민주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좌우합작의 중간과 정치노선을 견지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1948년 8월 남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企劃處長이 되어 우익정권인 이승만 정부에 참여했으며 1949년에는 朝鮮金融組合聯合會長이 되었고 1950년에는 남북전쟁(6·25전쟁) 발발과 함께 남북되었다.

20세기 前半期에 효정은 이처럼 다양한 사상적 정치적 편력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가지 평가가 공존할 수 있었다.¹⁾ 그렇지만 그의 생애를 통틀어 평가하면 그는 정치적으로는 좌우합작에 의한 통일민주국가의 수립을 지향했다가 남북분단 과정에서 남북한 체제에 각각 흡수되어 과편화한 중간과 정치세력의 전형적 행로를 밟았고, 사상적으로는 비록 서구의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의자는 아니었지만 일제하부터 시종일관 階級協助, 民族協同, 立憲主義, 개량주의를 견지했던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자, 사회개량주의자였다. 따라서 그의 생애와 사상을 검토하는 일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간과 정치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진영의 사상적 淵源,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한국적 受容과 變容 및 그 좌절의 역사를 검토할 요긴한 소재라 하겠다. 그 동안 학계가 한국 근현대 思想史의 전체 地圖를 그려 가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해 왔으면서도, 중간과 또는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성과를 축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고는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생각한다.

II. 日本 留學(1914~1922)과 思想의 형성

1. 東京 留學과 民族主義

효정은 1897년 11월 7일(음력) 전남 海南郡 三山面 松亭里에서 유교적 家風의 延安 李氏 喜免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자작농가에 불과했던 그의 집안은 1904년 부친이 돌아가자 더욱 기울었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시절부터 극심한 貧富差를 경험하며 '사회적 불공평을 저주하는 잠재의식'을 가지게 되었다.²⁾ 편모 슬하

1) 김명선 [29], 임영태 [41], 윤기중 [36], [37], 황명수 [51], 홍성찬 [48], [49], [50].

2) 이하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별도의 주가 없는 한 延禧專門學校學內赤化事件書類綴(1938~1940) [26], 費田忠衛 [27], 이순탁 [21] 참조.

에서 노동하며 漢學을 배운 그는 그 후 木浦公立普通學校에 입학하여 근대교육에 처음 접하였다. 그리고 14세 때 일제의 한국강점이라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排日의식도 지니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병합의 大精神이 韓·日 두 민족의 一視同仁과 동양평화 확립에 있다는 일제의 선전을 믿고 강점 후 전개될 한국인의 장래에 기대를 걸기도 하였다. 1913년 3월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公立 木浦簡易商業學校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학비 때문에 1학기 만에 중퇴하고 잠시 집에서 머물다가 삼산면 書記와 해남군청 雇員이 되었다. 이 기간 그는 강점 초의 격렬했던 反日운동이 진압된 데에다, 일제가 설립한 공립학교를 다녔고 일제의 말단 통치기구인 面所와 郡廳에서 일했다는 자괴지심도 가지고 있어 반일의식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면소와 군청에서 일제의 정책이 차별적임을 자각한 까닭에 일제에 대한 불만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효정은 1914년 7월 18세의 나이로 일본유학에 올랐다.³⁾ 東京에서 학비문제로 곤경에 빠진 그를 도운 것은 호남 대지주 金環中의 아들이자 仁村 金性洙의 친동생으로서 당시 東京麻布中學 5년생이던 秀堂 金季洙였다.⁴⁾ 그의 학비보조로 1917년 4월 東京成城中學 3학년에 편입한 효정은 1919년 4월 神戶高等商業學校 예과에 입학할 때까지⁵⁾ 동경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4년 반을 지냈고, 거기서 2·8독립선언, 3·1운동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사상을 내면화하게 되었다.⁶⁾

동경시절 효정이 내면화한 민족주의 사상은 동아일보 계통의 민족부르주아지 右派들이 견지한 實力養成論이었다. 1920년 7월 그는 한국경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였다.⁷⁾ 현재까지 확인된 그의 최초의 글인데, 여기서 그는 國民

3) 이순탁 [22]. 1916년 8월에 유학을 떠났다는 기록도 있다.

4) 김연수는 후일 삼양사와 경성방직을 경영하는 대기업가로 성장했고, 김성수는 동아일보와 보성전문학교를 경영하게 된다. 김용섭 [28].

5) 1918년 가을 중학졸업 검정시험에 합격한 효정은 成城中學 4학년 2학기를 중퇴하고 京都의 第3高等學校에 입학하려 했으나 김연수가 권유하여 神戶高商 豫科에 진학하였다.

6) 그의 민족주의 사상형성에는 1910년대부터 普天敎에서 활동한 두 형 祥吳와 成英(후에 正立으로 개명)의 영향도 컸던 것 같다. 보천교는 1920년대 초에 이미 거대교단으로 성장한 신흥 民族宗敎로서 3·1운동 후 민족에게는 메시아 思想을, 민족진영의 지식인에게는 민족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의 두 형은 교단의 핵심간부로서 李鐘翊, 高龍煥, 朱翼 같은 민족주의 지식인을 入敎시켜 교단과 민족운동 진영을 엮는 가교역할도 담당하였다. 1923년 1월 효정이 朝鮮物産獎勵會의 창립발기인 겸 이사로 참여했을 때 보천교가 간부 林敬鎬, 高龍煥, 朱翼 등을 理事로 참여시키는 등 舉敎적으로 이 운동을 지지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그 후 그의 두 형은 敎主 車京錫이 時局大同團이라는 친일단체를 만들어 어용화하자 만주로 출국했는데, 상호는 1925년에 돌아와 東華敎 敎主가 되었고 1926년에는 증산교 經典 『大巡典經』을 편찬했으며, 成英은 1942년에 東亞興産社라는 종교결사를 조직했다가 치안유지법에 걸려 해방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李正立 [39], [40], 한국민족종교협의회 [44], 홍성찬 [50].

7) 이순탁 [11].

經濟의 발전에는 자연적·인적·사회사상적 조건이 필요한데, 한국은 사회사상적 조건이 결여되어 경제발전이 지체되었다는 생각을 가졌다. 慾望制限論·寡欲思想에 기초한 儒敎가 서구의 자유방임사상과 달리 사치를 禁하는 소비론, 최소한의 재화만 생산하려는 생산론, 상공업과 화폐를 천시하는 사상과 제도를 고착시켜 경제발전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첫째는 경제지식의 보급이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경제지식의 有無가 경제적 성과를 가능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지에 商工學校와 機關을 세워 자유방임사상을 보급하고, 노동관념을 고취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는 자본가의 각성이었다. 그는 한국인 자본가가 공장, 회사, 大農園을 설립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를 자본주의 원리에 대한 지식과 각성의 결여 때문이라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자본가들이 경제지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그들의 子弟나 유능한 청년들을 공부시켜 그들로 하여금 企業케 하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셋째는 商權回復이었다. 당시 한국의 商權이 일본인들에게 거의 장악되어 있다고 본 그는 이유를 두 가지로 파악하였다. 하나는 유교의 경제사상과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國權을 상실당해 독자의 국민경제를 형성치 못한 점이었다. 따라서 그는 상권회복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권회복이 필요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新교육, 新지식을 보급하여 실력을 갖추고 產業組合사상을 보급하여 大小 도시에 소비조합, 생산조합을 설립하는, 그리하여 각종 물건을 엮가 공급함으로써 外商을 자연도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일제와의 정면 대결이 아닌 각계 지도자와 민족자본가를 중심으로 新교육을 보급하여 실력을 키우고, 산업조합운동을 벌여 외국상인을 驅逐함으로써 商權을 회복하는 우회적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1921년 5월에 그가 反動恐慌의 참상에 주목했던 글에도 나타난다.⁸⁾ 여기서 그는 공황이란 경제법칙에 따른 세계적 현상이지만 공황의 정도는 국가가 적절한 救濟策을 쓰는가, 국민이 공황에 견딜 실력을 가졌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은 공황에 견딜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국가도 救濟政策을 쓰지 않아 참상이 심했다고 보았다. 그러면 한국에서 적절한 공황대책이 실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일제에 강점당하여 '固有의 國民經濟 團體'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여겼다. 그러나 상권회복도 불가능한 터에 조선사회 고유의 국민경제 단체를 형성하는 일, '국가의 튼튼한 主權의 힘'⁹⁾ 즉 국권을 회복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민족자본가와 민족지도자를 중심으로 실력양성운동을 벌여 자

8) 이순탁 [2].

9) 이순탁 [13].

본을 축적하고 상공업을 진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실력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東京시절 민족부르주아지 右派와 교류하면서 그들과 사상적으로 공명했던 효정이 생각한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방안은 국민경제 형성, 국가주권 회복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일제와 정면 대결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독자의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족부르주아지의 각성을 통한 實力養成論에 기대를 걸었다.

2. 京都 留學과 맑스주의

1919년 9월 효정은 京都帝大 경제학부에 재학중이던 김연수의 권유로 神戸高商을 중퇴하고 경도제대 경제학부 選科에 입학하였다.¹⁰⁾ 그 곳에는 1917년에 『貧乏物語』를 출간하여 일본 최고의 경제학자로서 명성을 떨친 카와카미 하지메 교수가 있었다. 당시 카와카미는 일본 맑스학의 확립자,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은 일본 知性界, 경도제대 경제학부의 우상이었다. 효정도 그를 東洋古今의 唯一한 경제학자, 일본 사상계를 좌우하는 학자라고 여기며, '朝鮮의 카와카미 하지메'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그를 따랐다. 그리고 『社會問題管見』(1918), 『近世經濟思想史論』(1920), 『唯物史觀研究』(1921) 같은 카와카미의 저서를 섭렵하면서 감정적으로는 『貧乏物語』에서 이론적으로는 『유물사관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¹¹⁾

효정은 일찍부터 사회에 대한 불평심을 키워왔지만, 가난에 쫓기고 공부에 열중하느라 사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東京과 神戸에서 공부하면서 1차대전 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 각종의 反國家사상이 유입되어 사상계가 空前의 혼란기를 맞고 있고, 맑시즘이 합법·비합법의 실천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직시하였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어떤 結論的 斷案'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는 경도제대에서 카와카미의 강의와 맑스주의 서적을 읽으면서 점차 '貧富 兩階級の 형성 및 투쟁과 貧者계급의 승리'를 확신한 맑시즘에서 자신의 正義觀·學問觀을 수립해 갔다.¹²⁾

10) 1921년 4월 本科(英經濟科)에 編入했고, 1922년 3월 졸업하였다. 주요 이수과목은 經濟原論(1, 2부), 經濟史, 殖民政策, 統計學, 經濟書講讀(제1외국어), 農業經濟, 工業經濟, 商業經濟, 外國貿易論, 社會問題及社會政策(1, 2부), 財政學(1, 2부), 經濟學史, 金融論, 交通論, 保險論, 商法, 會計學 등이다(〈京都帝大學籍簿〉).

11) 이순탁 [5], 한양학인 [47], 앞의 [26], 이하 별도의 주가 없는 한 주로 [26]에 따름.

12) 효정은 京都帝大 재학중인 1920년 5월에 京都朝鮮人勞動共濟會를 결성하고 그 회장이로서 그 곳 한국인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排日思想을 抱持'한 그를 예의 감시하였다. 홍성찬 [49].

그렇지만 당시 그가 카와카미를 통해 수용한 맑시즘은 카와카미가 1923년과 1924년경 맑스주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旅行'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경제사상이었다. 카와카미는 셀리그만(E. R. A. Seligman)을 통해 처음으로 맑스의 유물사관에 접하였다. 따라서 카와카미에게는 유물사관을 변증법 철학과 분리하여 세계관·철학관이 아닌 단순한 경제학설로 통속화시켜 이해한 한계가 남아 있었다.¹³⁾ 카와카미는 1910년대 중반까지도 자유주의, 역사학과, 國民主義 경제학을 넘나들었으며, 1917년 「社會問題研究」 창간 후에도 不動의 맑스주의자가 아니었다. 1927년, 1928년경 진정한 '求道の 戰士', '不屈의 맑스주의자'로 轉化할 때까지 부르주아 경제학자에서 맑스주의 경제학자로 전화중인 학자였다. 그는 맑시즘이라는 '安住의 땅'을 찾아 경도제대에서만 무려 20년간이나 주저와 절충적 태도를 거듭했고, 강의도 맑스학의 祖述로 시종했던 1927년, 1928년 이후와 달리 부르주아경제학, 속류경제학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1922년 3월 경도제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효정은 이듬해 延專商科 교수로 부임할 때까지 맑스이론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¹⁴⁾ 그를 맑스주의자로 강렬하게 인상지운 글들로서 주로 카와카미의 글을 抄譯 翻案한 것인데, 주요 대본은 『근세경제사상사론』과 『유물사관연구』이었다. 그는 이 두 책을 맑스사상, 과학적 사회주의, 유물사관을 이해하는 데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당시 그가 수용한 카와카미경제학의 내용을 아는 데는 이 글들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이하 그 글들을 통해 그가 수용했던 맑시즘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920년대 초 카와카미는 맑스사상의 3大 원리를 과거에 관한 이론인 유물사관, 현재에 관한 이론인 경제학, 장래에 관한 이론인 정책론(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운동론이라 부름)으로 보고, 이 셋을 관통하는 원리로서 階級鬭爭說을 들었다. 맑스주의 정책론을 사회민주주의라고 지칭한 점이 주목되는데, 그가 말한 社民主義란 맑스가 理想으로 여긴 사회,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구분이 없고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였다. 카와카미는 이러한 맑스주의 정책론을 舉國勞動論, 資本家撲滅論이라고 불렀다. 그렇지만 그의 자본가박멸론은 자본가를 박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자유경쟁과 反獨占論을 철저히 시행하여 토지와 자본을 독점한 계급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자유경쟁 아래서 天分을 발휘하며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

13) 1923년부터 櫛田民藏, 福本和夫가 이 점을 집중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카와카미는 변증법 공부라는 '새로운 旅行'을 떠났다. 이하 카와카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가 없는 한 河上肇 [57], [58], 古田光 [52], 大内兵衛 [53], 山之内靖 [54], 井上清 編 [55] 참조.

14) 이순탁 [6], [7], [8], [9].

본가의 資本獨占 타파, '자본이라는 일종 財産에 대하여 공산주의를 실행' 하는 資本公有主義가 필요하다고 보았다.¹⁵⁾

한편 카와카미는 자본공유주의란 노동자의 계급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勞資協助를 주장한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등 新歷史學派 경제학자들과 달리 勞資協助論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실현은 노동자가 반대세력을 압제하는 가운데 실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방법도 권력계급이 자발적으로 사회를 改造하게 하는 도덕적·종교적 운동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다수의 힘으로 정치운동을 일으켜 '다소라도 국가의 권력을 자기의 手中에' 넣은 후 國權發動이라는 강제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¹⁶⁾ 그러면서도 카와카미는 이러한 정치운동이 激的 革命을 의미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맑스의 지적대로 사회혁명이란 경제적 기초가 변동함에 따라 거대한 상층건축의 전부가 '혹은 급격히 혹은 서서히' 변혁되는 것이라고 본 때문이었다. 그는 사회주의운동사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도덕적 설교에 의한 人心改造에 주력하였으나 이제는 國權 획득을 목표로 한 정치운동으로 바뀌었으며, 정치운동도 처음에는 반란으로 舊사회를 일거에 전복하고 新社會를 실현하려 했으나 그것이 空想임이 명백해지면서 그 후 입헌적·합리적 방법, 즉 신문이나 잡지에 主義와 사상을 선전하고 선거권을 요구하여 정당을 조직한 후 의회의 다수를 점하여 정치적 實權을 장악하는 쪽으로 점차 바뀌어 왔다고 보았다.¹⁷⁾

카와카미의 경제사상은 사회개조의 근본목표를 사회주의 실현에 두고, 토지와 자본에 대한 철저한 反獨占 정책을 실시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유경쟁 아래서 천분을 발휘하며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다. 방법도 勞資協助가 아닌 계급투쟁으로서, 무산자가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아 국가권력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카와카미는 그 실현수단으로서 激的인 革命만을 고집하지는 않았다. 신문·잡지에 주의와 사상을 선전하고, 정당을 만들어 선거로 다수당이 된 후, 議會를 통해 점진적·합헌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른바 제2인터내셔널의 社會民主主義 방안이었다.

이상에서 본 대로 유학시절 효정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을 수용하였다. 하나는 민족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조합운동 같은 합법적 개량적 운동을 벌여 商權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권을 회복하여 독자의 국민경제를 형성해야 한다는 민족주의 노선이었다. 다른 하나는 무산자가 계급투쟁 전략을 고수하며 개량적 입헌적 절차에 따라 정당을 조직하고 選舉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資本公有主義를 실현하는 맑스주의,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社會民主主義 노선이었다.

15) 이순탁 [7, 37회], 河上肇 [56].

16) 이순탁 [7, 37회, 12회, 7회].

17) 이순탁 [7, 8회], 河上肇 [56].

효정의 感情과 直觀은 민족주의, 애국주의를 내면화한 반면, 두뇌는 맑스주의, 계급주의라는 과학과 사회개조사상을 수용했던 것이다.

효정은 이 두 相衡하는 세계관 사이에서 고민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는 국제주의보다는 민족주의에 보다 깊숙이吸引되어 갔다. 계급주의,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애국주의 사이를 浮動하며 머리는 맑스주의, 세계주의를 따랐지만 몸은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는 카와카미의 사회개조사상을 “何等の 위험사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이를 거의 수용하였고 사회개조에는 상당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며 실천도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하상의 주장에 전폭 동조하였지만,¹⁸⁾ 계급협조를 비판하고 계급투쟁 노선을 고수한 카와카미의 노선만은 따르지 않았다. 勞資協助, 階級協助 노선을 견지한 것이다.

효정의 이러한 생각은 경도제대 재학중인 1921년에 社會改造 문제를 언급했던 그의 글에 이미 나타났다.¹⁹⁾ 여기서 그는 1차대전의 가장 큰 의의를 세계를 사회개조의 途上에 놓이게 했고, 사회개조가 프랑스·러시아 혁명 같은 激的 변화가 아닌 개량으로써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 준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戰前에 사회주의 노선에서 세계주의, 非국가주의를 표방하며 전쟁에 반대했던 각국의 무산자들이 開戰 후 社會主義를 버리고 조국방위를 위해 참전한 일이었다. 따라서 종전 후 ‘자신감과 도덕적 권위’를 가지게 된 이들은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각국의 정부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사회개조가 어느 한 계급의 혁명이 아닌 全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개량적 방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둘째는 장기전으로 노동자 계급의 협력이 절실했던 각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노동단체 대표를 內閣에 참여시키거나 그 밖의 중요한 정치적 지위를 주었고, 경제적으로는 공평 분배라는 물질적 개선과 함께 생산사업의 管理에도 일정한 參加權, 發言權을 주는 등 이들을 공동생활의 협력자로서 우대한 일이었다. 그는 이런 조치들이 모두 성공하지 못했고, 그나마 전후에 다시 불충분해졌다고 보았지만 이런 변화들은 종래의 노동운동을 강화하고 사회사상과 사회운동을 ‘물질적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진보하게 하는 데 커다란 효과를 가져왔다고 확신하였다. 셋째는 전쟁중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지식계급과 같거나 더 높아져 종래의 階級思想이 타파된 일이었다. 戰時的 물가등귀 아래서 노동자는 間斷없는 노동운동으로 임금인상을 꾀한 반면, 지식계급의 경제적 수준은 노동자와 같거나 그 이하로 떨어져, 종래의 계급사상과 물질적 사상이 크게 타파되었다는 것이다. 1차대전 후 사회사상과 사회운동에 나타난 새로운 동향을 이렇게 정리한 그는 향후의 사회개조 방안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8) 이순탁 [5].

19) 이순탁 [3].

資本家は…… 자기의 이득에만 현혹치 않고 정당한 수단으로써 평등한 분배를 실행하여 노동자에 대한 物質의 대우를 差等없이 하기에 노력하고…… 노동자에게도 사업관리상 等一한 협력자로 대우하여 參加權과 發言權을 부여하고 종래에 행하여 오던 專制權을 남용치 아니함으로써 精神上에도 만족을 하게 한다고 하면 전통적 守舊의 念을 가진 우리가 만드시 激的 手段으로써 사회를 改造하려고 할 것은 아니겠다. 그러나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激的 手段을 취하는데 대하여 부정치 않는다. 本論의 문제는 오직 금일까지의 社會改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심히 애매하였으니 革命의 바람에만 불니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改良에 노력을 하여 보자고 함에 불과하다.²⁰⁾

혁명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1차대전을 경유하며 西歐 사상계를 품미했던 사회민주주의,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社會改良主義·社會愛國主義 노선의 계급협조론, 노자협조론을 견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카와카미의 사회개조사상을 거의 수용하면서도 카와카미와 달리 계급협조론을 중시했던, 그리하여 카와카미의 사회민주주의 방안보다 더 개량적인 노선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맑스주의 내부에서 제2인터내셔널의 개량주의를 비판하며 제3인터내셔널 이른바 코민테른이 분립해 간 1920년대 초에 그가 오히려 계급협조와 개량주의 노선으로 나아갔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Ⅲ. 延專 教授 시절(1923~1938)의 활동과 思想

1. 階級協助論·民族協同論

1922년 3월에 귀국한 효정은 京都帝大 經濟學士라는 학벌과 카와카미의 제자라는 後光. 金季洙와의 오랜 인연 등을 배경으로 일약 학계와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하여 京城紡織주식회사와 朝鮮商業銀行을 거쳐 1923년 4월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가 되었고, 1923년 10월 보성전문학교로 옮긴 白象圭 교수의 후임으로 상과 과장代理가 되었다. 지금의 상경대학 학장이었다. 1924년 10월에는 정식 학과장이 되어 연전의 상과 과장이자 교무위원으로서 학교의 실력자가 되었다. 주지하듯 1920년대 前半期의 한국에는 1차대전 후의 각종 사상이 유입되는 가운데 크게 두 계열의 정치세력 정치이념이 분립 각축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 한말 이래의 地主的 路線과 農民的 노선을 계승 조정한 민족·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그것이었다.²¹⁾

20) 이순탁 [3].

이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은 3·1운동 실패 후의 국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귀국 후 효정은 두 가지 일에 몰두하였다. 하나는 교육 학술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독립을 전망하면서 사회단체·사상단체에서 활동한 일이다. 전자와 관련해서 그는 신문이나 잡지와 延專 講壇을 통해 맑스의 유물사관과 경제학설을 활발하게 소개하였다.²²⁾ 그를 맑스주의자로 강렬하게 인상지운 앞서의 글들은 대부분 이 때 발표되었다. 그는 연전상과의 경제학풍을 세워 나가는 데도 전념하였다. 1925년에 白南雲(동경상대), 趙炳玉(콜롬비아대) 등을 영입한데 이어, 1928년에는 연전상과 제자인 盧東奎(京都帝大)를 교수로 임용하여 상과의 學風을 反日·反官學·反帝의 기초 위에서 세워 나갔다.²³⁾ 그렇지만 사회단체·사상단체 활동과 관련해서는 1927년 2월에 서울청년회 계통의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勞動運動」이라는 잡지의 책임집필자로서 선임된 것을 제외하고는²⁴⁾ 1920년대 내내 民友會, 朝鮮物產獎勵會, 朝鮮事情研究會, 太平洋問題研究會朝鮮支會, 新幹會 등 민족·자본주의 노선과 민족협동론 노선의 단체에서만 활동하였다. 경제학자로서 맑스이론에 필적할 경제이론이 없다고 생각했던²⁵⁾ 그가 사회주의·공산주의 노선의 정치운동, 조직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후일 그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하였다.²⁶⁾ 첫째는 非法的·過激的 정치운동에 적당치 않고 실천운동에 참가할 용기가 없던 자신의 성격이었다. 둘째는 기독교 학교로서 사회주의, 맑스주의 같은 反기독교 사상의 학문적 연구가 아닌 공개적 선전 실천운동을 용납하지 않은 延專이라는 직장의 성격이었다. 셋째는 제3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의 世界革命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가운데 본질적 배경은 셋째로서 당시 그의 사상적 입장을 잘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23년 1월 동아일보가 주도한 朝鮮物產獎勵會의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효정은 그 해 3월 사회주의자들이 이 운동을 비난하자 맑시즘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구사하며 그 옹호에 나섰다. 논적은 사회주의자 李星泰였다. 이성태는 이 운동을 소수 자본가와 중산계급이 주도하는 中產階級운동으로서 본질적으로 非革命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운동이 성공해도 한국인 자본가와 중산계급이 그 果實을 독점할 것이므로

21) 김용섭 [28], 방기중 [31].

22) 趙炳玉 [43], 한양학인 [47], 趙璣濬 [42]. 연전상과에서의 강의과목은 經濟原論, 倉庫論, 商業史, 商業文, 統計學, 保險論, 商業政策 등이었다.

23) 홍성찬 [49].

24) 「조선일보」, 1927. 2. 14.

25) 이순탁 [23].

26) 〈轉向錄〉 [26].

사회주의자와 무산자는 당연히 이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²⁷⁾ 그러나 효정은 이를 단순한 중산계급운동이라고 보지 않았다. 조선의 자본가, 無產者, 知識階級, 민족주의자, 세계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남자, 여자 등 모든 계급이 '한 日傘 아래 모여' 일으킨 民族的 政治運動이라고 보았고, 또 모든 중산계급운동을 非혁명적 운동이라고도 여기지 않았다.²⁸⁾ 그들 자신이 무산자로 變移되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에 의식적으로 참여한다면 중산계급운동도 혁명적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이 운동을 옹호한 때는 동경시절 이래 김성수, 김연수 등 이른바 물산장려운동의 주도세력인 민족주의 右派와의 인연을 넘어선 좀더 깊은 인식론적 배경이 있었다. 첫째는 맑스의 혁명론에 대한 이해였다. 그는 맑스의 유물사관에는 맑스가 혁명론자로서 지적한 政治革命과 사회진화론자로서 지적한 社會革命이라는 차원이 다른 두 개의 혁명론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전자는 정권획득을 목표로 한 무산자 혁명, 후자는 社會構成體의 이행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정치혁명은 '사회진화의 途程에 橫在한 一插話'로서 '정치의 局面에 일어난 일개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하므로,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시기에 '단순한 정치혁명으로 사회혁명을 기도하는 것'은 무모한 계책이라고 생각하였다.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이렇게 이해한 효정은 물산장려운동 당시의 한국사회를 "금일의 경제조직이 一旦一夕에 붕괴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조직 안에서 '더 새로운 더 高度인' 경제조직을 산출할 만한 혁명의 元素를 잉태시킬 필요가 있는" 단계라고 보았다. 한국은 아직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사회주의가 실현될 단계가 아니며, 사회진화라는 것도 '한두 개인의 의사'가 아닌 '필연적 진화의 階段을 밟아야' 하는 것이므로 物產을 장려하여 산업을 진흥케 하며 생산기관을 발달시키자는 물산장려운동은 사회주의의 주장과 하등의 모순이 없다는 논리였다.

둘째는 일제하 한국인은 모두 無產者에 불과하다는 현실인식이었다. 이른바 總體的 無產者論이었다. 그는 강점 후 한국에서 전개된 富, 공업화, 인구증가는 모두 일본 자본주의에 의한 것으로서, 결코 한국의 경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일제하의 발전은 한국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발전으로서, 강점이 지속되면 모든 한국인은 곧 공업·농업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일본인 移住가 더욱 늘면 결국은 國內流離를 거쳐 國外流離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²⁹⁾ 1926년 말 서울의 민족별 토지소유·자본액을 검토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이런 인식을 보여 주는 예이다.

27) 李星泰 [38].

28) 이순탁 [10].

29) 이순탁 [13].

京城은 벌써 朝鮮의 中心이 아니다. 朝鮮人의 중심이 아니다. 즉, 경성은…… 조선인의 경성이 아니라 日本人의 京城이다. 경제방면에서 보아 그러한 즉 다른 방면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경성은 '京城'이 아니라 '케이조우'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성에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3배 가량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성이라는 집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고 오직 그 집의 雇傭人, 使役者밖에 되지 못하면 벌써 그 집의 주인은 아니다.³⁰⁾

강점하의 계급대립 구조를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립으로 이해하면서 한국인은 總體的 無產者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이다.

이런 인식 아래 그는 맑스주의의 근거에 놓인 國際主義, 世界主義에 의문을 표하였다. 強占下라는 特殊事情上 '조선의 노동자는 二重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계급적으로 자각한 노동자라도 또 아무리 利害가 동일한 被搾取者라도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는 서로 '握手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맑스조차 他民族 지배하의 폴란드 공산주의자들에게 계급혁명, 계급해방이 아닌 민족혁명, 민족해방을 주요 과제로 삼는 黨派를 도우라고 촉구한 바 있으니 한국의 사회주의자들도 민족적 정치운동인 물산장려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다음은 그의 이러한 心中을 보여 주는 예이다.

今日 帝國主義下에 있는 우리 朝鮮의 現狀에 在하여는, 즉 어느 의미로 노동자의 필연적 단결운동에 一助가 되는 朝鮮現狀에 있어서는 '階級鬭爭의 戰線을 분명히 할 수'도 없을 것이오 또한 '階級鬭爭의 戰線을 분명히 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다.³¹⁾

효정은 일본인은 자본가, 지주, 부자, 지배계급으로, 한국인은 노동자, 소작인, 貧者, 피지배계급으로 양극화한 한국에서는 사회혁명에 선행하여 민족적 정치운동, 민족적 정치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朝鮮에서의 共產革命運動은 조선의 特殊事情上 支配계급, 富者계급인 일본인에 대한 被支配계급, 貧者계급인 조선인의 투쟁운동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조선에서의 공산혁명운동은 民族的 政治革命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내가 조선의 특수사정에 卽한 이러한 혁명 견해를 소지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당시 조선농촌에서 급속히 몰락한 조선인 地主의 토지가 거의 전부 日本人 손에 들어가 조선에서는 조만간 일본인은 地主, 조선인은 小作人 또는 農業勞働者가 될

30) 이순탁 [16].

31) 이순탁 [10].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둘째는 都會에서 大小 상공업 경영을 거의 일본인이 독점하여 자본은 일본인에게 집중되는 반면 조선인은 점차 도회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와 無產者로 전락하여, 조만간 조선에서는 內地人是 資本主, 조선인은 勞動者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요컨대 조선에서는 결국 일본인과 조선인 兩 민족이 각각 貧富 兩階級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 민족적 감정까지 겹쳐 나는 이른바 民族共產主義者가 되어 朝鮮의 共產革命은 먼저 民族的 政治革命의 階段을 거쳐 그 후에 社會革命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가졌다.³²⁾

1920년대에 그가 코민테른의 世界革命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정치운동 조직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민족·자본주의 노선과 민족협동론 노선의 실천운동에만 참여했던, 그리고 계급협조를 비난한 카와카미와 달리 계급협조를 견지했던 인식론적 배경은 이러하였다. 강점하의 민족적 모순이라는 특수사정을 고려해야 했던 그는 이런 고민이 문제되지 않았던 그래서 1923년, 1924년경부터 '생명을 건 飛躍을 결의' 하며 새로운 旅行을 떠나 1927년, 1928년에는 급기야 경도제대 교수직마저 버리고 공산주의 실천운동에 직접 참가했던³³⁾ 카와카미와는 처지가 같을 수 없었다. 한국에서의 政治革命이란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한 무산자의 직접적인 국가권력 장악이 아닌, 민족해방·민족독립을 목표로 한 민족적 정치운동, 민족적 정치혁명이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효정은 맑스의 정치혁명을 민족적 정치혁명이라는 개념으로 代置함으로써 국제주의, 계급주의와 민족주의, 애국주의라는 세계관의 대립, 두뇌와 행동의 거리라는 고민에서 벗어나 계급협조론, 민족협동론으로 기울 수 있었고, 나아가 朝鮮革命은 민족적 정치혁명 단계를 거쳐 사회혁명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2段階 革命論을 제시할 수 있었다.³⁴⁾

그는 이러한 인식론, 혁명론에 기초하여 노자협조론뿐만 아니라 勞農協助論도 개진하였다. 1924년 4월 15일 朝鮮勞農總同盟 결성대회가 노동운동과 소작운동의 협동을 결의하자 그는 이를 적극 지지하였다. 노동자와 소작인은 이해가 다른 계급이지만 둘다 자본가와 지주라는 有閑계급에게 착취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공동의 階級戰線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가 이런 결론에 도달한 이론적 입장은 두 가지였다.³⁵⁾ 첫째는 앞서 말한 대로 일제하의 계급대립 구조를 자본가 지주인 일

32) 〈轉向錄〉 [26].

33) 河上肇 [58].

34) 카와카미도 社會革命과 政治革命을 구분하였다. 『經濟學批判』 '序言'의 사회구성체 이행에 관한 맑스의 命題와 후진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사회주의 혁명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이론적 노력의 결과였지만, 여기에는 생산력 발전에 卽하여 社會主義로의 移行이 平和的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했던 카와카미의 미묘한 심정도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山之內埔 [54]. 효정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35) 이순탁 [11].

본인 對 노동자 소작인인 한국인으로 인식한 점이다. 둘째는 총인구의 85퍼센트를 점한 농업인구 특히 소작농이 비록 농업노동자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농업경영자도 아니라고 인식한 점이다. 소작농을 '一種 雇傭勞動者의 지위로 逐日 墮落'하여 농지경작으로부터 얻는 報酬와 사회적 지위 면에서 '오직 法律上 自由있는 農奴', '일종 雇傭勞動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소작인이 고용노동자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와 소작인의 協同이 가능하고, 둘다 對極의 일본인 자본가와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실정이므로 노동운동과 소작운동의 협동, 勞農同盟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이것이 민족적 정치혁명의 첩경이라는 논리였다.

이러한 민족협동론, 계급협조론, 좌우합작론의 시각에서 그는 1927년 1월 新幹會의 창립이사 겸 간사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은 1928년 12월 테제를 기점으로 '계급 對 계급' 戰術에 입각하여 민족주의 우파는 물론 좌우합작 민족협동 노선의 민족주의 좌파까지도 주요 打擊대상으로 설정하고 나섰다. 결국 신간회는 1931년 5월 정식 해소되었고, 左右合作 民族協同 노선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다. 게다가 그는 1929년 6월 연전 상과 동맹휴학 때 학생들과 진보진영으로부터 '衣食과 地位를 위해 한때 抱持한 바 있던 맑스주의사상에서 變身 改宗'한 인격적으로 비열한 인물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³⁶⁾ 민족협동 노선이 와해되는 속에서 이런 비난까지 받자 그의 실망은 엄청났던 것으로 보인다. 1933년에 상해에 들른 그는 그 곳 외국인 가운데 조선인만 확실한 생활근거를 마련치 못한 이유를 한국인이 모험심, 진취성이 적고, 선배들의 民族指導 원리가 틀렸으며, 아직도 派爭黨鬪의 惡性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印度 방문시 인도국민들이 階級間的 투쟁, 종교의 알력, 영국의 離間政策에서 벗어나길 절규한 것도 같은 예였다.³⁷⁾ 원대한 민족지도 원리를 생각하지 못한, 派黨의 폐를 깨닫지 못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루 빨리 계급간의 투쟁에서 벗어나길 기원했던 것이다.

효정은 1930년대에 일제의 사상통제가 더욱 강화되자 사상단체, 사회단체에의 참여를 중단한 채 학교행정과 학술활동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1930년대 초에 민족주의 左派와 右派가 민족의 문화·언어·역사에 내재한 특수성을 찾아 反日的 요소의 집결체, 민족적 구심체를 형성한다는 의도 아래 일련의 文化革新運動을 전개하자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1931년 1월 朝鮮語辭典編纂會 편찬위원이 되었고, 1935년 4월에는 朝鮮語 연구를 목표로한 朝鮮音聲學會의 창립발기인이 되었다.³⁸⁾ 그리고 1933년 6월에는 일제의 官學的 조선경제 연구에 대결한다는 목표 아래 유억겸,

36) 홍성찬 [49], 한양학인 [47].

37) 이순탁 [21].

38) 방기중 [31], 홍성찬 [49].

백남운, 노동규, 김도연, 김광진, 김우평, 이여성, 서춘, 이궁중 같은 다양한 학풍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朝鮮經濟學會를 만드는데 참여하였다. 민족협동론자들이 흔히 걸은 행로를 밟은 것이다. 1920년대보다 좀더 개량주의 쪽으로 기울었지만 여전히 민족협동론을 고수했던 셈이다.

2. 反獨占 民主主義論

일제하 효정의 정치경제사상을 구성한 다른 한 요소는 民主主義論이었다. 1933년에 영국에서 宗教의 자유, 인도 독립,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非戰論, 반제국주의 등 온갖 정치적 주장이 자유롭게 선전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아 — 思想의 자유, 主義의 자유, 宣傳의 자유, 영국에 와서야만 이러한 자유를 볼 수가 있다”며 경탄하였다. 앞서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서 파시즘이 勞組, 사회민주당, 공산당 같은 각종 反파시즘 세력을 극단적으로 탄압하는 현장을 목격했던 그로서는 공산주의조차 자유롭게 선전 토론되는 영국에서 사상의 위기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사상의 자유경쟁, 主義와 宣傳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사상의 위기에서 벗어날 첩경임을 확인한 것이다.³⁹⁾ 이런 점에서 그는 일종의 思想的 多元主義者였다. 일제하 延專 商科 科長으로서 학교의 실력자였던 그가 商科 교수진에 일본, 미국에서 공부한 다양한 學風의 학자들을 영입한 것이나, 강의시간에 맑스주의·反맑스주의 참고문헌을 균형 있게 소개한 것도 그의 이런 면모를 보여 주는 셈이었다.⁴⁰⁾

이러한 효정은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파시즘에 극도의 염증을 가졌다. 파시즘을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 정치현상, 자본주의의 일반적 危機 속에서 발생한 폭력적 독재주의라고 규정한 그는 파시즘의 본질을 정치사상적으로는 國家至上主義, 경제사상적으로는 國家資本主義에서 찾았다. 따라서 파시즘 혁명은 필연적으로 국가에의 절대 복종, 자본의 重要性 認定, 생산과 분배의 個人管理 긍정, 사유재산 옹호, 세계주의 배척, 공산주의 계급투쟁 반대, 타국에 대한 무력투쟁을 불러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⁴¹⁾ 그가 히틀러를 진시황에 비유하며 2차대전의 발발을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앞서 말한 대로 카와카미를 통하여 그가 수용했던 社會改造 방법은 무산자가 그들의 사상을 신문이나 잡지에 자유롭게 선전하고 선거권을 요구하여 선거로 의회의 다수당이 된 후 국가권력을 장악 발동하여 立憲的·合理的 절차에 따라 사회개조를 단

39) 이순탁 [21].

40) 홍성찬 [49].

41) 이순탁 [19].

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에게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개조를 위한 필수적 선행조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지만 효정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사회개조의 충분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경제적 민주주의가 수반되지 않는 정치적 자유는 법률적·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經濟民主化, 즉 '경제조건을 어느 정도로 是正'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생활조건의 자유와 평등을 부여할 때 비로소 달성된다고 보았다.⁴²⁾ 경제조건 시정을 實質的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여긴 것이다.

그의 민주주의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경제적 평등을 누리는 민주주의였다. 그리고 그 전제는 경제조건 현상을 是正하는 일, 經濟組織의 변혁이었다. 그는 이를 物的 改造란 말로써 표현하기도 하였다. 1930년 10월에 쓴 짤막한 斷想에서 그는 당시의 가장 큰 사회문제는 가난이고 가난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有閑계급, 즉 富豪나 特種階級 같은 사회기생층들 때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주는 人心의 변혁, 즉 心的 改造보다 '富를 共同 生産하며 公平分配'하는 物的 改造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⁴³⁾ 1925년 초에는 흉년으로 파멸에 빠진 한국경제의 궁극적 구제방안을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個人의 자본을 다같이 團合하여 外來資本에 대항하는' 길을 제시하였다.⁴⁴⁾ 일종의 組合運動을 제창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資本團合이 결코 쉽지 않으며, 설사 실현되어도 전국에서 일거에 실현되지 않고 개별 부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힘이 미약할 것이므로 먼저 '現今의 우리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改革'시켜 놓고 자본을 團合해야만 단합도 鞏固해지고 大資本도 능히 '運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그가 현재의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한 의미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外來자본주의, 즉 일본으로부터의 국권회복이고, 다른 하나는 '資本主義 立場에 서지 않는' 非자본주의적 변혁이었다.⁴⁵⁾

대공황이 정점에 달한 1931년 초에도 그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生産協同組合論을 구상하였다. 농촌구제를 위한 당면대책으로 자작농에 대한 諸부과금 免除 輕減, 저리 금융 제공과 소작료의 최대 인하, 부업 酒草全廢 色衣장려, 早婚방지 장려 등을 제안하면서, 근본적 대책으로서 협동조합운동 특히 촌락을 一單位로 하여 금융, 소작지 획득, 농구 비료구입, 作物 판매, 耕作, 소작료 지불 등을 共同 連帶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운동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⁴⁶⁾ 앞서 그가 '우리 사회에

42) 이순탁 [24].

43) 이순탁 [17].

44) 이순탁 [12].

45) 이순탁 [12].

46) 이순탁 [18].

있는 개인의 자본을 다같이 團合' 하여 외래자본에 대항하는 일종의 조합운동을 제창 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서 일본으로부터의 국권회복과 함께 '자본주의 입장에 서지 않는' 非자본주의적 변혁을 강조한 점으로 보아 여기서 말한 생산협동조합이란 일종의 사회주의적 생산협동조합이었다. 같은 시기에 그가 대공황의 근본원인을 자본주의 경제기구의 결함에서 찾고, 자본주의가 개혁되기 전에는 공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것은 몰라도 근본적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예였다.⁴⁷⁾

일제하 효정이 주장했던 민주주의론은 단순한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富豪 또는 特種階級을 구축하여 가난을 해결하는, 富를 공동생산 공평분배하는, 자본주의적 입장에 서지 않는 경제적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 개혁이었다. 후일 그는 자신이 지향했던 사회개조의 궁극적 목표를 '공장·토지·철도 등 주요 생산기관의 私有를 철폐 하여 國有로 하며, 생산물을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 분배함으로써 貧富의 懸隔을 줄이는' 것이었다고 회고하였다.⁴⁸⁾ 주요 생산기관을 국유화하고 생산물을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는 이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합법적 수단에 의해 조선민중을 공산주의적으로 教養하고 조선민중에게 계급의식을 주입하여 자각을 촉구함으로써 공산주의적 政黨을 만든 후, 이 정당의 힘에 의해 합법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방안을 생각하였다.⁴⁹⁾ 물론 그가 말한 합법적 방법이란 당국이 容認하는 정도에서 신문, 잡지, 팸플렛과 公衆會 등을 통해 민중을 教養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 초 효정의 정치경제사상은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사상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무산자가 선거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정치혁명), 그 권력을 발동하여 점진적 개량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해 간다는 서구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는 아니었다. 帝國主義下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오히려 무산자와 유산자,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協調하여 우선적으로 民族的 政治革命을 일으켜 國權을 회복하고, 그 국권을 매개로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조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사회민주주의 受容은 일제 강점하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變容되며 좀더 改良化했던 것이다.

47) 이순탁 [20].

48) 〈被告人李順鐸訊問調書 1940. 4. 22〉 [26]. 후일 경제연구회 사건 때 豫審判事 앞에서 한 말이라 文字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대체로 그의 생각을 반영한다고 여겨진다.

49) 〈被告人李順鐸訊問調書 1940. 4. 22〉 [26]. 자료의 성격상 여기서의 공산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궤으로 해석하면 될 듯하다.

IV. 解放 直後(1945~1950)의 政治 參與와 路線

1. 左右合作論

1945년 8월 일제가 패퇴하고 남한에서 미군정이 실시되자 효정은 延專商科 교수로 복직하였다.⁵⁰⁾ 그리하여 延禧大學準備委員, 延禧後援會常務理事, 政經商學部長 등으로 일제 말에 초토화되었던 고등교육기관의 재건에 노력하는 한편 연희전문학교가 연희대학으로 승격한 후에는 初代 商學院長(지금의 商經大學長)이 되어 광복 후의 대학교육 발전, 특히 상경계 학문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 해방 후 그는 정치활동에도 나섰다. 1945년 9월 韓國國民黨 창당에 간여했고, 곧이어 韓國民主黨이 창당되자 이에 참여하여 재정분과위원장을 맡았다.⁵¹⁾ 김연수등과의 인연이 깔린 선택이었던 셈인데, 한민당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1946년 10월 左右合作委員會가 제시한 합작 7원칙을 한민당이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한민당을 탈당, 당시의 대표적 중간파 정치집단이던 民衆同盟 결성에 참여했고, 거기서 상임위원, 총무부장, 재무부장을 맡았다. 그 해 12월에는 민중동맹 추천으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官選議員이 되었고, 그 후 중간파 정치세력이 결집하여 만든 民主主義獨立戰線의 상무위원(1947. 2), 朝鮮共和黨의 중앙상무위원(1947. 5), 民族自主聯盟의 기축세력이던 民主獨立黨의 창당정강정책위원·상무중앙집행위원(1947. 10)을 맡는 등 민주독립당을 탈당(1948. 1. 25)할 때까지 줄곧 중간파 左右合作派 노선을 걸었다.⁵²⁾

일제하에 정치운동 정치활동을 자제했던 그가 해방 후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선, 한국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서도 1946년 후반 이후 당시의 兩大 정치세력이던 한국민주당과 조선공산당을 거부하고 중간파·좌우합작파 노선에서 줄곧 활동한 이

50) 그는 1938년 4월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연전상과의 백남운, 노동규 교수 등과 함께 구속되었다. 1940년 7월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그 해 12월에 불구속 상태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으며, 일제 말기에는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교수대우 겸 서무과장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홍성찬 [49].

51) 非常國民會議의 전남대표·재정위원, 民主議院의 경제전문위원도 맡았다. 송남헌 [34]. 1945년 11월에는 白南雲, 洪性夏, 尹行重 등과 함께 군정청 경제교문에 위촉되었는데, 이들은 糧穀自由化가 식량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統制配給制로의 환원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顧問職을 총사퇴하였다. 한규훈 [46].

52) 民主獨立黨은 中間右派의 5개 정당이 합당하여 만든 정당이다. 完全獨立, 民主主義, 民族統一이 주요 政綱이고, 1947년 10월에는 자주적 민주통일정부 수립, 신탁없는 독립, 미·소 양군 철퇴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효정은 민주독립당 탈당 후에도 單政수립 반대, 남북협상 참여를 지지한 문화인 108인 성명(1948. 4. 14)과 미국의 對韓·對日정책을 비난하고 미·소 兩軍의 동서 撤收를 주장한 문화인 330인 성명(1948. 7. 26)에 서명하는 등 통일정부 수립을 꾸준히 염원하였다.

유는 무엇이였을까. 그 배경에는 그의 특유한 時局觀이 작용하였다.⁵³⁾ 첫째, 그는 1945년 8월의 일제의 패퇴를 자본가와 지주계급이 일거에 청산된 따라서 경제민주화 실현의 최대 장애가 제거된 일종의 革命 狀況으로 받아들였다. 일제 패퇴로 일본인(資本家) 對 한국인(無產者)이라는 계급대립 구도가 무너졌고, 일본인 자본도 비록 지금은 미군정에 귀속되어 있지만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移管되어 우리 국민의 공동소유가 될 것이므로 좌우가 합작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경제정책만 민주적으로 실시한다면 '現狀을 그대로 두고 말한다' 해도 경제민주화는 낙관적이라고 전망하였다.

둘째, 그는 해방직후의 民族資本 세력을 경제민주화에 지장을 줄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민족자본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나는 금융상공업 부문의 한국인 자본가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地主세력인데, 전자는 세력이 약하여 경제민주화의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敵產拂下를 둘러싸고 급성장한 거대 資本家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았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민주화에 지장을 주겠지만 비료난, 생산재 결핍, 투기열 등으로 기업의 신설 증설 誘引이 없고, 대규모 신규기업체는 쉽게 허가되지 않는 실정인데다, 무엇보다 적당한 시기에 이를 '凍結'하거나 적당히 '處理 指導'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地主勢力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다. 이들이야말로 해방 후 민족자본의 토대, 민족자본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가 경제민주화를 낙관하면서도 '土地問題만 적당히 處理' 한다면, '금후의 경제정책만 민주적 방침에 의하여 수립 실행' 한다면 등의 전제조건을 단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셋째, 그는 당시 한국을 점령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들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어느 한 쪽도 일방적으로 무시할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미·소 양군의 현실적 존재를 도외시한 채 향후의 국가건설 모델로서 서구식·미국식 자본주의만 고집하거나 소련식 사회주의만 고집해서는 안 되며, 양자의 妥協, 즉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를 折衷 合作하여 통일민주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의 체제발전 모델로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가지 見地를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그가 이처럼 합작론, 절충론을 주장한 데는 특유의 美國觀과 蘇聯觀이 내재되어 있었다. 1933년에 미국을 방문한 그는 금일 미국의 문명과 문화는 질로나 양으로나 세계의 왕좌를 점하였으니 "누구든지 이를 의심하거든 모름즉이 미국을 가보라. 想像하든 이상의 것을 발견할

53) 이하 별도의 註가 없는 한 이순탁 [24] 참조.

것이니”라고 감탄하였다.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注入法, 典型式, 冊床주의, 強制式 교육에 대비한 미국의 自學法, 啓發式, 實務주의, 自意式 교육을 극구 찬양하며 미국 교육에 대한 그간의 오해가 “실제로 見學해 본즉 다 飛散하였다”고 고백하는 등 강렬한 美國觀을 지녔다.⁵⁴⁾ 소련에 대한 인상도 마찬가지였다. 1920년대에 이미 소련의 종교와 노동제도를 소개했고, 그 후 연전상과 商業研究室을 통해 소련에 관한 서적을 꾸준히 구입 연구함으로써 사회주의 최강국으로서 ‘鞏固와 성장을 거듭’해 온 소련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지녀왔다.⁵⁵⁾ 그리하여 그는 1933년 11월에 미·소 양국이의교관계를 회복하자 향후 세계의 정치·경제·외교 질서가 前과 다른 체도를 밟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⁵⁶⁾

해방 직후 효정의 시국인식은 이러하였다. 특히 그는 일제하부터 사회개조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기능을 극히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자신의 이념을 실현할 결정적 계기를 입헌질서내에서의 국가권력 장악과 그 발동에서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南北 左右가 合作 折衝하여 우선 조선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가 토지개혁 등 일련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시한다면, ‘今日 조선의 재관적 모든 정세’로 보아 좌우 남북을 막론하고 민주적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시에 관한 이념이 ‘거의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건설 경제민주화는 통일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⁵⁷⁾ 이러한 시국인식 아래서 그는 해방 후 한국의 경제민주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社會革命이 아닌 合意에 의해 달성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 직후인 그 해 12월 초에 그가 “조선에서는 반드시 革命手段에 의하여 사회혁명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民衆의 힘에 의하여 合意的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⁵⁸⁾고 한 것은 이러한 시국관을 보여 주는 일이었다. 따라서 1946년 후반기 이래 미국이 국내의 극우 극좌 세력을 배제한 채 좌우합작과 중간파 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을 구성하여 당면한 정치민주화·경제민주화 문제를 처리해 가기로 對韓정책을 수정하자, 그는 이에 참여하였다. 일제하부터 합법적 의회주의적 노선을 지지해 왔던 그는 이를 좌우합작 노선에 기초한 朝鮮政府 수립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적극 관여했던 것이다.

54) 이순탁 [21].

55) 이순탁 [14], [15], [21], 홍성찬 [49].

56) 이순탁 [21].

57) 이순탁 [24].

58) 이순탁 [24].

2. 計劃經濟論

해방 직후 효정이 左右合作派·中間派 노선에서 활동한 배경은 이러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그가 건설하려 했던 통일민주국가의 경제체제는 무엇이었을까. 1946년 12월에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官選議員(산업노동위원회 및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이 된 그는, 1947년 초부터 입법위원의 토지개혁법 제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토지문제 처리가 경제민주화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그는 1921년 8월에 일제가 朝鮮産業調査會를 구성하자 이를 겨냥하여 일종의 정책제안서이자 농업개혁론인 「朝鮮과 農業」이라는 글을 발표한 바 있었다.⁵⁹⁾ 이 글에서 그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를 토지문제, 특히 소수의 일본인 대지주가 '조선의 現狀에서는 가히 許認치 못할 大農制度를 作'하여 地主경영을 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농업상의 근본정책을 地主制 개혁과 中小農制 확립에서 찾아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中小自作農 제도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정치적으로나 가장 유리한 제도라고 본 때문이었다.⁶⁰⁾

그는 이러한 중소농제를 일거에 확립할 첨경은, 土地處分法을 제정하여 開墾地 官有地와 함께 '면적이 過大하다고 認할' 지주의 토지를 가능한 한 매수한 후 이를 노동능력이 있는 조선인 중소농에게 분배하는 유상매수의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흉년등 예상치 못한 사태로 資力없는 농민이 분배농지를 팔아치우면 중소농제 확립은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중소농 보호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하나는 一家의 생계 보장에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토지를 家産으로 지정하여, 이의 매매, 양도, 저당을 금지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移轉할 때도 정부가 先買權을 갖도록 하는 家産農地制를 도입하는 일이었다. 토지에 대한 엄격한 國家管理를 구상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家産農에게 對人信用으로 농업금융을 저리융자해 줄 特殊農業金融機關을 설치하는 일이었다.

효정은 자신의 이러한 농업론을 토대로 1947년 2월부터 입법위원의 토지개혁법 입안에 참여하여 그 해 12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까지 모든 토론을 주도하며 법안의 골격을 짜나갔다. 1948년 1월 12일 입법위원 본회의에서 산업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朝美土地改革連絡委員會 위원장이었던 박건웅⁶¹⁾은 효정이 시종일관 입법을

59) 이순탁 [4]. 일제하 효정의 농업론과 입법위원 토지개혁법 사이의 관계는 홍성찬 [48]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이하 별도의 註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60) 이는 사회민주주의의 농업론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일제하 백남운은 이순탁과 달리 大農論을 주장하였다. 방기중 [32].

61) 박건웅은 방기중 [33], 홍성찬 [48].

주도해 왔음을 소개 치하하면서, 법안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효정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효정이 입법을 주도한 핵심이론가였음을 강조한 말이었다. 이러한 까닭에 이 법안에는 농지의 有償買收와 그 分配에 의한 중소농제 확립, 중소농 보호를 위한 家產農地制와 特殊農業金融機關 설립 등 1920년대 초에 그가 구상했던 농업론이 거의 반영되어 있었다.⁶²⁾ 예컨대 自耕하지 않거나 3정보를 초과한 농지를 정부가 평균소출의 30%로 遞減買上하여 소작농, 영세자작농, 고용농에게 분배하게 했으며, 농가가 소유 경작하며 家產으로 계승해 가는 가산농지를 絶家, 離農, 轉業 등으로 처분하려 할 때도 국가에 先買權을 주도록 하였다. 家產農地制를 도입한 것이다. 한편 이 법안은 모든 농지에 대한 자유매매, 저당, 증여, 기타 처분과 소작 및 임대 행위, 그리고 擔保權, 地上權, 先取特權 설정 등을 일체 금지하였다. 부득이 농지를 처분할 때도 국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농지에 대한 엄격한 국가관리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향후 農地金庫라는 公法人을 만들어 농업금융을 수행토록 하는 등 중소농 보호를 위한 그의 특수금융기관 설치 구상도 거의 반영하였다.

효정의 토지개혁론은 대개 이러하였다. 박건웅은 이 법안을 제안하면서 토지개혁이 극단주의과의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 발전에 가장 필요하고 또 필연적인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토지개혁은 농민해방과 농촌진흥이 필요한 자본가 계급의 슬로건이지 결코 공산당이나 무산계급의 슬로건이 아니라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음도 강조하였다. 효정이 핵심이론가로 참여하여 만든 이 법안의 입법정신은 토지개혁 후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서 상정하는 가운데 유상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대지주를 없애고 중소자작농이 중핵을 이루는 중소농 체제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단순한 자본주의 농업체제가 아니었다. 한 국민주당등 右翼이 주장한 유상매수, 유상분배와 토지개혁 후 북한에서 실시한 농지의 국가관리 체제를 合作 折衝한 방식이었다.

그는 상공업에서도 중소기업이 중핵을 이루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1947년 12월 박건웅은 미군정, 미국무성, 미국경제고문, 기타 권위자들의 공통적 의견임을 들어 향후 모든 敵産은 우리 정부의 소유가 될 것이며, 그럴 경우 한국은 물론 세계적 추세상 대기업은 國營으로, 중소기업은 개인에게 불하 또는 임대하여 私營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⁶³⁾ 박건웅은 입법의원 산업노동위원회와 朝美土地改革連絡위원회, 그리고 1947년 9월에 창립된 朝鮮産業再建協會를 통해서도 줄곧 이순탁과 행동을 같이 하며 효정이라는 측근의 경제브레인으로부터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관점과 지식을 공급받아온 터였다. 게다가 효정도 일제하에 이미 주요 생산기관의 국

62) 입법위원의 토지개혁법안은 韓國農村經濟研究院 [45].

63)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連記錄』, 4, 제190호, 1947. 12. 22, 여강출판사.

유화 국가관리를 말해 왔고, 해방 후에는 敵産을 국민적 차원에서 공평분배하여 국민적 생산에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온 터였다.⁶⁴⁾ 이런 점에서 박건웅의 생각은 바로 曉亭의 생각이었다고 여겨지며, 사실 대기업 = 國營, 중소기업 = 私營論은 民族自主聯盟 등 중간파 정치세력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였다.⁶⁵⁾

효정은 경제운용 방식에서도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국가가 綜合的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는 計劃經濟 체제를 구상하였다. 그가 농업, 인구,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가의 종합계획 아래 농업인구의 適正分布, 인구의 도시집중 방지에 의한 농업노동력 부족의 해결, 자본의 産業·都農間 적절 배분, 금융, 경지정리, 농사개량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예였다.⁶⁶⁾ 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해방 직후 그가 구상한 통일민주국가의 경제체제는 단순한 자본주의·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아니었다. 농업은 국가가 유상매수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대지주를 없애고, 家産農地制를 도입하여 농지의 매매·저당·증여·소작·임대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농지의 국가관리 체제였다. 가산농지도 국가에 先買權을 주는 제도였다. 상공업도 대기업은 국가가 國營하고, 중소기업은 개인이 私營하는 체제였다. 중소농과 중소기업이 사회의 중핵을 이루는 가운데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를 운용해 가는 資本家 독재도 無產者 독재도 아닌, 독점자본주의 사회도 무계급 사회도 아닌 일종의 계획경제 체제, 사회민주주의 체제였던 것이다.⁶⁷⁾

이러한 효정은 1948년 8월 7일 이승만 정부의 초대 企劃處長에 전격 발탁되었다. 남한정부의 기획처장으로서 그는 농지개혁법 제정과 對日賠償要求調書 작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948년 9월에 발족한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농지개혁법안을 만들었고, 1949년 2월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자 그는 이를 한국 현실에 가장 적합한 법안이라고 옹호하며 地主擁護的인 법안이라는 世評에 千萬 意外라는 반응을 보였다.⁶⁸⁾ 가산농지론이 그대로 입법화한 것도, 농지의 국가관리가 견지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이 정도로서 만족하였다.⁶⁹⁾ 그의

64) 이순탁 [24].

65) 방기중 [33].

66) 이순탁 [25].

67) 방기중 [33]. 獨占資本主義 社會도 無階級 社會도 아닌 朝鮮的인 民主主義 社會의 건설은 민족자주연맹의 기본이념이었는데, 효정은 民族自主聯盟의 중심세력이던 民主獨立黨의 창당정강정책위원, 상무중앙집행위원이었다.

68) 『새한민보』 3-4, 1949. 2. 21, 25면. 효정은 기획처장, 대한금융연합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中央農地委員會의 民間人委員으로서 農地改革 전반에 걸친 중요정책을 토의하였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 [45].

69) 효정은 對日賠償정책도 주도하였다. 1948년 가을 일본에 戰爭賠償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1949년 2월 對日賠償調査審議委員會를 설치했고, 각 부처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對日賠償要求調書』(全2卷)를 작성하였다. 유진오 [35].

절충주의적 사고를 보여 주는 예로서, 절충주의야말로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의 世界觀的 哲學的 기초라는 지적은 적어도 이 시기의 효정에게는 합당했던 셈이다.

1949년 7월 기획처장에서 물러난 그는 조선금융조합연합회·대한금융조합연합회 회장으로 1950년 2월 15일까지 재직하였다.⁷⁰⁾ 평소 중소농 보호를 위한 특수금융기관 설립을 주장해 온 그의 이론과도 합치하는 선택이었다. 그 후 효정은 중간파 세력이 대거 출마했던 1950년 5월 제2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경 남북되었다. 해방정국기에 左右合作 노선에서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전망하며 정치활동을 펴다가, 남북한에 자본주의·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자 독자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이에 흡수 용해되어 周邊化 挫折하고만 중간파 정치세력의 전형적 행로를 밟았던 것이다.

V. 結 語

1910년대 말, 1920년대 초의 사상형성 과정에서 효정은 두 개의 세계관을 내면화 하였다. 東京에서 金季洙등 민족 자본주의 성향의 유학생들과 交遊하며 자연스럽게 익힌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京都에서 카와카미의 경제사상에 접하면서 자신의 學問觀, 正義觀으로 수용한 맑스주의 계급주의가 그것이었다. 이 시기 효정은 이 두 상반된 세계관이 내면에서 팽팽하게 견인하는 가운데 둘 사이를 浮動 왕래하며 고민하였다. 머리는 계급주의에 끌렸지만, 몸과 행동은 이를 따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曉亭은 이 두 세계관을 절충 합작하며 자신의 정치경제사상을 형성해 갔다.

일제하 그의 정치경제사상을 구성한 핵심요소는 국제주의·계급주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는 민족협동론, 계급협조론이었다. 민족주의의 吸引力이 계급주의의 그것을 압도한 것이다. 그가 민족주의에 흡인되어 민족협동론, 계급협조론을 견지한 인식론적 배경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맑스의 혁명론에 대한 이해였다. 그는 맑스의 社會革命과 政治革命을 구분하는 가운데 당시의 한국사회를 사회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이 필요한 단계라고 인식하였다. 자본주의 변혁, 사회혁명, 사회개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아직 사회혁명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한국인은 總體的 無產者라는 현실인식이었다. 그는 일제하의 계급구조를 일본인(지주·자본가·富者) 對 한국인(소작농·노동자·貧者)이라는 대립구조로서 파악하였다. 따라서

70) 그는 外國援助物資運營委員會委員(1949. 8), 中央勞動調停委員會委員(1949. 11), 考試委員會考試部高等考試委員(경제학, 1949. 12), 法典編纂委員會도 위촉되었다.

한국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는 처지가 같지 않으므로 제국주의하의 한국에서는 계급투쟁 戰線을 분명히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인식을 토대로 그는 한국에서의 혁명은 사회주의로의 移行을 의미하는 사회혁명일 수는 없고, 또 무산계급이 직접 정권을 장악하는 단순한 정치혁명일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일제 강점하라는 특수사정 때문에 한국에서의 혁명은 모든 한국인 자본가, 무산자, 지식계급, 민족주의자, 세계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남자가 협동 단결하여 일제로부터 國權을 恢復하는 民族的 政治運動, 민족적 정치혁명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의 혁명론은 맑스의 정치혁명 개념을 민족적 정치혁명으로 代置한, 그리하여 朝鮮革命은 민족적 정치혁명을 거쳐 사회혁명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2단계 혁명론이었다. 그가 코민테른의 국제주의·계급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민족협동 계급협조 좌우합작 노선을 견지한 이유였다. 일제하 사회민주주의 수용의 한국적 變容인 셈이었다.

일제하 그의 정치경제사상을 구성한 다른 한 요소는 民主主義論이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사회라고 생각하였다. 가난의 주범인 富豪와 特種 階級이 구축된 사회, 富를 공동생산하며 공평분배하는 사회, 주요 생산기관을 國有로 하고 생산물을 능력에 따라 분배하여 貧富差를 줄이는 사회였다. 자본주의의 변혁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혁명적 방법만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합법적 방법으로 정당을 만들고, 신문이나 잡지에 그 이념을 자유롭게 선전하며, 선거로 의회의 다수당이 되어 국가권력을 장악한 후, 국가권력을 매개로 사회를 改造해 가는 입헌적 의회주의적 개량적 수단을 중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일제하 그가 견지한 정치경제사상은 제2인터내셔널 노선의 사회민주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개량주의였다.

이러한 효정은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이를 자신의 이념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일제 패퇴로 지배계급인 일본인 지주, 자본가, 富者가 물러나게 되었고, 敵産은 한국정부에 移管되어 민족의 공동소유가 될 것이며, 한국인 자본가는 세력이 약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는 左右가 연합하여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를 합작 절충하는 방식으로 하루 빨리 통일민주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가 민주적 원칙 아래 토지개혁 같은 경제정책만 적절하게 실시하면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左右의 양대 정치세력인 조선공산당과 한국민주당을 거부하고, 좌우합작의 통일민주국가 건설을 지향한 民衆同盟, 民主獨立黨 같은 중간파 정치노선에서 활동한 이유였다.

해방 직후 그가 구상한 통일민주국가의 경제체제는 독점자본주의 사회도 무계급 사회도 아니었다. 토지개혁으로 지주제를 철폐하고 家産農地制를 도입하여 中小農制

를 확립하며 국가가 모든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업체제였다. 우익의 유상분배 방식과 북한의 국가관리 방식을 절충했던 것이다. 상공업 분야에서도 대기업은 國營하고 중소기업은 私營하는 절충적 체제를 구상하였다. 나아가 그는 단순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경제를 운용해 가는 計劃經濟 체제를 생각하였다. 일종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였다.

1948년 8월 효정은 우익인 이승만 정부의 초대 企劃處長에 발탁되었다. 분단과정에서 독자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左右 정치세력에 각각 흡수되어 좌절한 중간과 정치세력의 전형적 행로를 밟은 것이다. 기획처장으로서 그는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어, 농림부안과 기획처안을 절충하고 또 정부내 한국민주당 세력의 견해까지 절충하는 방식으로—당초 그가 구상했던 家產農地論과 농지의 國家管理論이 배제된—남한정부의 농지개혁법안을 만들었다. 1949년 2월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그는 이를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한 법안이라며 옹호하였다.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의 철학적 기초가 절충주의에 있다는 지적은 이 시기의 효정에게는 합당했던 셈이다.

◆ 참고 문헌 ◆

〈李順鐸 교수 論著〉

1. “半島의 經濟上 地位를 論하여 今後 經濟發展策에 及함(全5回)”, 「동아일보」, 1920. 8. 4~8. 11.
2. “目下の 恐慌과 半島經濟社會의 慘狀(5회)”, 「동아일보」, 1921. 5. 26~5. 30.
3. “歐洲戰爭이 社會思想上에 及한 影響을 論함”, 「新民公論」, 2-7, 1921.
4. “朝鮮과 農業—獎農機關設置의 急務를 論함(全15回)”, 「동아일보」, 1921. 10. 12~11. 2.
5. “社會問題에 대한 河上肇 博士의 態度와 見地”, 「新生活」, 1-6, 1922.
6. “막스씨의 唯物史觀(全18回)”, 「동아일보」, 1922. 4. 18~5. 8.
7. “막스思想의 概要(全37回)”, 「동아일보」, 1922. 5. 11~6. 23.
8. “막스以前의 經濟思想(全14回)”, 「동아일보」, 1922. 7. 12~8. 7.
9. “資本主義 生産組織의 解剖(全16回)”, 「동아일보」, 1923. 1. 19~2. 9.
10. “社會主義者가 본 物產獎勵運動—李星泰氏의 論文을 評함”, 「동아일보」, 1923. 3. 30.
11. “勞動運動과 小作運動의 協同”, 「開闢」, 47, 1924. 5.
12. “巨資團合—外來資本對抗, 京城延專教授 李順鐸氏談”, 「동아일보」, 1925. 1. 1.
13. “朝鮮人 無產化의 특징”, 「新民」, 2-8, 1926.

14. “쏘벨 국가의 宗教”, 『延禧』, 5, 1926.
15. “소비에트 국가의 勞動制度”, 『現代評論』, 1-4, 1927.
16. “京城이나? 케이쥬우냐?”, 『동아일보』, 1927. 1. 5.
17. “寄生蟲 偶感”, 『青年』, 10-8, 1930.
18. “農村組合과 連帶責任”, 『東光』, 20, 1931.
19. “今日의 과시증 運動”, 『東方評論』, 3, 1932.
20. “物價騰貴와 景氣轉換”, 『青年』, 12-8, 1932.
21. 『最近世界一周記』, 한성도서주식회사, 1934.
22. “東遊舊憶”, 『新東亞』, 5-1, 1935.
23. “特殊事情에 鑑한 經濟學의 朝鮮的 研究論”, 『조선일보』, 1935. 7. 8.
24. “朝鮮의 經濟民主化(全2回)”, 『동아일보』, 1946. 12. 1, 12. 5.
25. “民族的 見地에서 본 經濟政策(人口食糧問題)”, 『民政』, 1-1, 1948. 9.

〈資 料〉

26. 『延禧專門學校學內赤化事件書類綴』, 1938 ~ 1940.
27. 貴田忠衛, 『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1935.

〈기타 論著〉

28. 김용섭,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일조각, 1992.
29. 김명선, “이순탁 교수”, 『월간 세브란스』, 11, 1979.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韓國農業金融史』, 1963.
31.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2. _____, “日帝下 白南雲의 韓國資本主義發達史論”, 『東方學志』, 77. 78. 79 합집, 1992.
33. _____, “해방정국기 중간과 노선의 경제사상”, 『經濟理論과 韓國經濟』, 박영사, 최호진박사강단50주년기념논문집간행회, 1993.
34. 송남헌, 『韓國現代政治史』, 1. 성문각, 1980.
35. 유진오, “韓日會談”, 『중앙일보』, 1983. 8. 30, 9. 1.
36. 윤기중, “경제·경영학의 학문적 전통”, 『계간 연세 진리 자유』, 겨울호, 1989.
37. _____, “이순탁”, 『계간 연세 진리 자유』, 봄호, 1993.
38. 李星泰, “中産階級の 利己的 運動 — 社會主義者가 본 物産獎勵運動”, 『동아일보』, 1923. 3. 20.
39. 李正立, 『大巡哲學』, 甌山敎敎化部, 1947(1984년 개정판).
40. _____, 『甌山敎史』, 甌山敎本部, 1977.

41. 임영태,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 사계절, 1985.
42. 趙璣濬, 『韓國資本主義發展史』, 대왕사, 1991.
43. 趙炳玉, 『나의 回顧錄』, 어문각, 1963.
44. 한국민족종교협의회, “普天教”, 『韓國民族宗教總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1992.
45.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農地改革史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9.
46. 한규훈, “朝鮮銀行40年”, 『金融經濟』, 4, 1979.
47. 한양학인, “左傾教授 右傾教授 — 延禧專門教授層評(續)”, 『三千里』, 12, 1931.
48. 홍성찬, “일제하 李順鐸의 農業論과 해방직후 立法議院의 토지개혁법안”, 『經濟理論과 韓國經濟』, 박영사, 1993.
49. _____, “일제하 延禧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會事件’”, 『연세경제연구』, I (창간호), 1994.
50. _____, “한국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 『역사문제연구』, 1, 역사문제연구소, 1996.
51. 황명수, “이순탁”, 『한국사대백과사전』,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52. 古田光, 『河上肇』, 東京大學出版會, 1959.
53. 大內兵衛, 『河上肇』, 筑摩書房, 1966.
54. 山之內靖, “大正デモクラシーとマルクス主義”, 『近代日本經濟思想史』, I, 長幸男·住谷一彦 編, 有斐閣, 1969.
55. 井上清 編, 『不屈のマルクス主義者 河上肇』, 現代評論社, 1980.
56. 河上肇, 『近世經濟思想史論』, 岩波書店, 1920.
57. _____, 『經濟學大綱』, 1, 青木書店, 1928.
58. _____, 『自敘傳』, 1, 岩波書店, 1952.